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코로나19가 치료된 간증을 전해온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만세 전부터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시고 때가 이르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예수’는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망막 손상으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물이 책을 읽으면서 보이게 되고, 한글을 깨우치는 등 영육 간에 축복받은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2호 2021년 4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에서 온 편지 -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정명호 목사

정명호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노먼 박사와 통화 중 그를 위해 권능의 손수건을 휴대폰 위에 얹고 기도해 주고 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코로나19가 치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월), 저희 나이로비만민교회 실비아 소이타 집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동생을 위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저(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 정명호 목사)는 마음에 주관을 받아 화요일 오전 11시에 기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오라고 했지요.

실비아 소이타 집사는 교회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도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고 있는 나이로비만민교회의 사역에 대해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동생인 노먼 박사(38세, 아래 사진)는 3월 22일(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록 타운에 약 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피로와 고열, 귀 통증과 잦은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지요.

실비아 집사와 통화할 때마다 노먼 박사는 기침 없이 2분도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도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고,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고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3월 23일(화) 오전 11시, 약속된 시간에 온 실비아 집사는 동생 노먼 박사와 전화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노먼 박사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 메시지에 깜짝 놀랐고 저에게 구원받기 위한 기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원받기 위한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한 후,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 직후, 그는 몸에서 열과 피로가 즉시 사라졌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24일(수)에는 실비아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전했고, 통화하는 동안에 기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토), 그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노먼 박사는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치료됐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더욱이 본인만 전화로 기도를 받았는데도 열이 나던 네 자녀 모두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너무나 감사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뜨거웠지요.

그는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받은 자신의 간증과 나이로비만민교회의 사역에 대해 주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시공을 초월해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했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감염시킨 환자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로 자신을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 주기 위해 나록 타운의 보건소, 나이로비의 보건부 및 전국의 최고 언론인에게 보내어 전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먼 박사는 당회장님의 성결의 복음과 이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나이로비만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의사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7~8)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면서 구원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때가 이르기까지 철저히 비밀 가운데 숨겨두셔야 했지요. 과연 만세 전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며,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계 12:5). 또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뜻하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이 깨뜨려질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올 것과 원수 마귀 사단의 체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으므로 원수 마귀가 그 지혜를 알 수도, 깨우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자기를 상하게 하기 전에 죽어 없애고자 하였지요. 구세주만 없애버리면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지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애굽의 바로왕을 사주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역사했고(출 1:15~22),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

셨을 때에는 헤롯왕을 사주했지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이를 가만두면 장차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헤롯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과 그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두 살부터 그 아래로 태어난 사내아이를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 마귀의 계계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할 것을 알려 주시며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마 2:1~18).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장한 예수님께서 마침내 30세에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지요(마 11:5). 그러자 원수 마귀 사단은 또다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계계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 기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공생애를 마칠 때가 이르러서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 십자가에 양손, 양발을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알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권세를 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원수 마귀 사단은 스스로 영계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2. 영계의 법을 어긴 원수 마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공의로우시니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으시며 모든 것을 영계의 법칙에 따르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길

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만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롬 6:23)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으면 결코 사망에 이를 수 없는데 원수 마귀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벧전 2:22~23)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원수 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며,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에 의해 뱀의 머리가 상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꼬리가 밟히거나 몸이 잘려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잡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지요. 따라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권세를 빼앗기고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결과적으로 영계의 법을 어긴 것이요,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곧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장하는 권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롬 5:18~19).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창 3:15).

원수 마귀는 자기 꾀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계를 파악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섭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일 원수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고전 2:8).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원수 마귀 사단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 가운데 숨겨 놓으셨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섭리를 아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면 구원과 부활, 영생과 천국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참 믿음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하지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행 2:38),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말

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면 천국의 법도, 곧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하지요. 이렇게 천국의 법을 좇아 살 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므로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시고 때가 이르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과 부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뜻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행 4:27)라는 뜻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이고 중보자인 구세주의 직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의 표현인 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완성형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습니다(레 4:3 ; 삼상 10:1 ; 왕상 19:16).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삼상 16:13).

예수님께서 죄인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위에 임명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써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이름 사이에는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옳지만, 부활 사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주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는 ‘예수’라는 호칭에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원수 마귀 사단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벧전 5:8).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피의 의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며 영육 간에 축복받아



“책으로만 구분됐던 글씨가 잘 보입니다”

문상현 집사 (1대대 4교구, 57세)



20년 전, 저는 금형설계 일을 하다가 전자파로 인해 망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려 보아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흰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씨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었고 어떤 글씨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당회장님 저서 읽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구장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오디오북을 들어

보면 좋겠다고 권하셔서 들었는데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보일러 센서등에 불 들어온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 거실에 있는 보일러 센서등이 보이고, 똑바로 보아도 그 불빛이 보였지요. 무지개 사진을 보내 주어도 볼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사진 속 무지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십자가의 도』,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에 이어 『천국』을 읽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곽영심 집사 (1대대 1교구, 81세)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한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애뒀던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로 인해 제 마음은 항상 답답하고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눈에 익혔던 글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며 책을 읽었지요. 그러다 보니 한 권을 읽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가며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며 글자를 연결해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더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10권을 완독하였지요. 완독을 하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할 뿐 아니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았습니다”

이민화 집사 (중국 1교구, 64세)



‘당회장님 저서 읽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앉아 있기도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마음 다해 읽었지요. 『믿음의 분량』을 읽으며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졌고, 『천국』을 읽으며 자녀들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귀한 영적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 책 읽

느라 잠 못 자도 전혀 졸리지도, 피곤하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에는 책을 읽을 때 허리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감동 속에 10권을 일주일 만에 완독한 얼마 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팔기 위해 내놓았던 집이 좋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이처럼 신속하게 거래가 성사됐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성결과 천국 소망 간절해졌어요”

이성숙 집사 (중국 2교구, 50세)



교회에 등록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사명에 대한 사모함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에서 진행 중인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 한 달 만에 성경을 통독하였는데, 그 후 ‘당회장님 저서 읽기’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저는 곧바로 당회장님 저서들을 읽기 시작해 10권을 완독하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당회장님 저서들을 읽으면서 천국을 침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사명에 대한 사모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겼지요.

『영혼육』을 읽을 때는 혼적인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고, 『천국』을 읽을 때는 열심히 마음을 할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옥』을 읽을 때는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상대의 잘못이 있을 때 미워했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내 안에 악이 있으므로 상대를 미워했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당회장님의 저서를 읽으며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릉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